

### 이홍재의 세상만사



어느 후보가 선거 사무실 앞에 이렇게 써 붙였다. '작지만 강한 남자'. 체구는 왜소하지만 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때 강풍이 불어서 맨 앞 날말의 받침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결국 '거시기'만 강한 남자가 된 그는 아줌마들의 표표를 받아 당선됐다고 한다.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좀 싱거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 후보의 당선 소감이 재미있다. "선거는 역시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산들거리던 미풍은 선거 종반에 이르러 회오리바람으로 변했다. 온 산야(山野)가 연두색으로 물들어가던 그 파스한 봄날에 불어닥친 '녹색 돌풍'이었다.

호남 지역만을 놓고 보면 '국민의당에 의한 국민의당을 위한 국민의당'의 선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정당득표율에서는 더 민중에 앞서 제1야당이 됐다.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정치평론가들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 자화자찬이지만 광주

일보만이 정확한 흐름을 감지했다.

선거 초기의 일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각각 몇 석을 차지할 것인가? 이를 놓고 갑론을박하며 사람들이 내기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4대4로 반분될 것이다, 2대6으로 더민주가 열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광주일보, 7대1 혹은 8석 전석 석권으로 국민의당의 압승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기사와 칼럼에 반영했다. 광주일보의 논조에 의아해 하며 갑피를 못 잡던 다른 신문들은, 총선이 끝난 후 결과가 나오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 '녹색 돌풍' 3당시대 열었다

광주에서 시작된 바람은 들불처럼 전남으로 번졌다. 더민주 소속 후보들은 비바람에 꽃잎 지듯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래도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만이 공동묘지에 홀로 핀 꽃처럼 살아남았다. 이 의원은 거센 돌풍 속에서도 어떻게 꺾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30여 년 전 도청 사무관 시절부터 그를 눈여겨보아 온 터라, 몇 가지 승리 요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역대 도지사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그의 업무 처리 능력이다. 여기에 그가 갖고 있는 특유의 친화력도 한몫했을 것이다.

어찌 됐든 그의 독자 생활은, 더민주가 호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공천만 잘했다면 이처럼 처참

### 모두가 놀란 호남의 탁월한 선택

한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임을 말해 준다. 호남 유권자들을 무시하며 막대기만 꽂아 놓아도 당선될 것으로 생각했던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선거 참패를 불렀다는 얘기다.

아무튼 이번 4·13총선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로, 20년 만에 다당(多黨)체제로 바뀌는 격변이 일어났다. 역사적인 3당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당선자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던 그날 새벽,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개표 방송을 보는데 이런 말이 떠올랐다.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는, 민심이 그만큼 무섭다는 말이다. 당나라 재상 위징(魏徵)이 했던 이 말. 왜 그때 갑자기 떠올랐을까.

물 같이 순하던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성난 파도가 되어 두 개의 배를 뒤엎었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하나의 배는 호남에서 참패한 더민주당이고 또 하나의 배는 전국적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은 새누리당이다. 참으로 절묘한 선택이었으니 절망에 말하면 일석이조(一石二鳥)요, 속되게 말하면 '일타양피'(고스톱 용어)였다. 고요했던 민심의 바다는 한순간에 격랑(激浪 : 거센 파도)이 되었다. 그것은 특히 호남 유권자들을 더 이상 물로 보지 말라는 경종이기도 했다.

물론 선거 때마다 높은 투표율과 몰표로 인해 구시대적이라는, 호남인들에 대한 일부의 냉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투표 행위

에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간절함이 있다. 그 간절함은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정치 구도에 대한 갈구(渴求)다. 호남인들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늘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적 선택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제1당의 자리를 내주고 제2당으로 주저앉은 집권 여당의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새누리당 대표 회의실에 걸렸던 그들의 메인슬로건은, 아무도 몰랐던 그들의 앞날을 미리 말해 주고 있었다. "정신 차리자 한 방에 흑 간다." 새누리당에 보내는 누리꾼들의 쓴소리를 공모해 채택했다는 그 홍보문안대로, 그들은 설마 했다가 그야말로 한 방에 흑 가고 말았다.

**겨울을 끼고 살았던 동주처럼**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 주었다. 집권당에 대한 분노로 비호남권은 더민주당을 지지했고, 더민주당에 대한 분노로 호남권은 국민의당을 표를 몰아주었다. 왜 이렇게 분노가 커져서 쌓였을까? 그거야 모두들 다 아는 바 아닌가. 거둬들 잘못에도 그들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묻지도 않았고, 마지못해 사과할 때도 오로지 표를 위해 잠시 없던 것을 뿐이다.

다만 국민의당 역시 그들이 잘해서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닌 만큼, 언제나 '한 방에 흑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 승리가 내년 대선에서는 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나, 안철수 대표 또한 마찬가지다.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지 말입니다." 그렇게 송중기 흉내를 내는 것이야 상관할 바 아니지만, 차체에 호남 정치를 복원하지 못한 채 권력 다툼에만 나선다면, 언제 또 쓴맛을 볼지 모른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성호 이익 선생은 '경명'(鏡銘)에서 이렇게 썼다. "얼굴에 때 묻어도 사람들은 말 안 하지. 그래서 겨울은 말없이 모습 비취 허물을 보여 준다네. (以故鐵不言 寫影以示羞)" 그렇다. 자기 얼굴에 묻은 때는 남들이 얘기를 안 해 주면 잘 모르지만, 곁에 겨울이 있으면 수시로 비취 보아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총선이 주는 교훈 중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닐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은 겨울 하나쯤 곁에 준비해 두고, 수시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라는 것. 겨울은 참회와 자기반성의 도구이니 말이다.

이번 운동주는 밤이면 밤마다 구리겨울을 손바닥으로 뒤으며 자신을 성찰했다. 그리고 이런 시를 남겼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할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려드립니다." 선량들이여! 그대를 또한 동주처럼 그런 굳센 맹세, 할 수 있겠는가? (주필)

### “제2 전남학숙 건립 검토”

이낙연 지사, 광주 북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등 물색

이낙연 전남지사는 21일 “제2 전남학숙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박철홍(담양1) 의원이 제2 전남학숙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 있는) 전남공무원교육원이 2020년 (전남 강진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교육원 부지에 짓는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살펴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남학숙이 화순에 자리해 학습과 가까운 조산대, 광주대, 송원대 재학생이 많은 반면 전남대, 광주교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광주 북구권에 제2 전남학숙을 두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학숙 현원은 284명(남 100명·여 184명)이며 모두 광주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대학별로는 광주대가 91명으로 가장 많고, 송원대(85명), 조산대(56명), 조선이공대(25명), 전남대(12명), 조선간호대(6명), 광주교대(1명) 등이다. 특히 전남학숙과



전남 화순에 위치한 전남학숙.

광주시에 오가는 시내버스가 1대(배차간격 50~55분)에 불과해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기숙사 평균 경쟁률은 2대1 가량이다.

전남도 예산이 지원되는 전남학숙 기숙사비는 한 달에 11만원(하루 세끼 식사비 포함)이다. 입사 조건은 광주에 있는 2년제 이상 대학(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전남도로 돼 있어야 하고 성적이 양호해야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야구장 맥주보이 허용 국세청 “국민 편의 감안”

최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세청이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택배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따라서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 /연남뉴스

### 광주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결국 가입 ‘후폭풍’

시, 집행부 간부 징계·사무실 폐쇄 등 계획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자치부가 요구중인 집행부 간부 징계, 노조 사무실 폐쇄 등의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노조는 지난 8일 전체 조합원 1288명 중 657명(51.0%)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83.1%인 546명이 찬성, 조합원 과반 참여에 3분의 2 이상 찬성인 가결 요건을 채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총투표 이후 전공노 가입 신청 여부 등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전공노

는 시 노조가 지난 21일 가입 신청을 해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전공노가 공개한 성과급 반납 투쟁 주장 유인물에도 광주시노조의 전공노 가입사실이 드러나 있다.

전공노는 유인물에서 “개별노조였던 시노조가 성과급철폐 지지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전공노에 가입했다. 행정부의 방해 책동에도 성과급철폐 투쟁에 대한 시 조합원의 의지가 모아진 결과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전공노 가입이 확인된 만큼 이른바 이달 안으로 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자부가 고발한 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시 노조 간부들의 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자부는 최근 “총투표 가결 공표는 광주시노조가 스스로 합법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불법 단체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합법 노조상태에서 인정했던 각종 권리와 보호, 편의제공 등단을 광주시에서 요구했다. 광주시는 우선 노조 사무실 폐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체협약 해지 등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함된다. 공무원과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위원회와 달리 의료원을 직접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남도는 공모절차를 거쳐 이승(53) 광주 송정하나병원 내과원장을 신임 강진의료원장에 내정하고 내달 초 임명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 강진·순천의료원 쇠신 주민참여위 구성

전남도가 의료진 나이환자사 사건과 의료장비 부정납품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전남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의 쇠신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의 의료 체계 쇠신을 위한 각각 12명으로 구성된 쇠신위원회에 전남도 공무원, 의료원 원장, 의료원 노조 관계자 등과 함께 지역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이 포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p><b>남</b></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p>	<p><b>여</b></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이나운사,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b>남</b></p> <p>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p> <p><b>여</b></p> <p>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